

롯데홈쇼핑 '숨:편한 포레스트 1호' 첫 삽

롯데홈쇼핑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샛강생태공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녹지공간 '숨:편한 포레스트 1호' 조성을 기념하는 식목 행사를 진행했다. 약 4000㎡ 면적에 나무 3000그루를 심고 운동 및 편의시설과 산책로 등을 조성해 도심 속 쉼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총 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숨:편한 포레스트' 50곳 조성이 목표다.



스마트폰 사업 7월31일 종료...‘가전·자동차 전장사업’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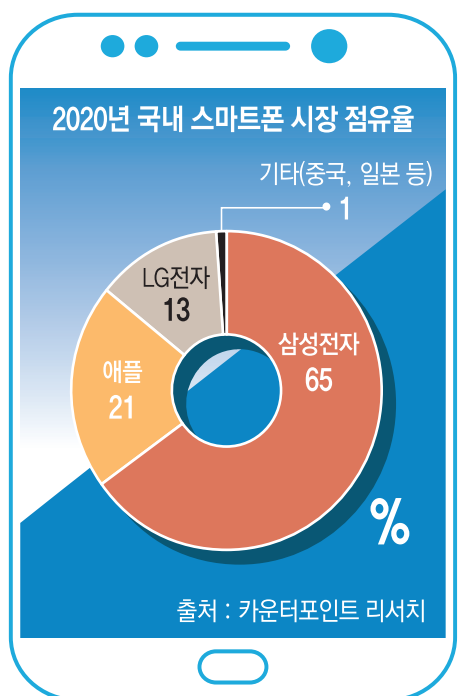
LG, 26년만에 휴대전화 사업 접는다

1995년 ‘화통(話通)’이라는 브랜드로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한 LG가 26년 만에 사업을 접는다. LG전자는 휴대전화 사업을 7월 31일자로 종료한다고 5일 밝혔다. ‘텐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초콜릿 폰’ 등 인기 제품에 힘입어 2008년 세계 3위까지 올랐지만, 스마트폰이 대세가 된 2010년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경쟁사에 밀려 고전한 결과다. 이에 따라 기대를 모았던 세계 최초 폴더블폰 ‘LG롤러블’도 결국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LG전자는 가전과 자동차 전장사업에 좀 더 힘을 쏟을 계획이다. 경쟁사들은 LG전자의 빈자리를 공략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LG전자 휴대전화 사업 종료와 관련한 궁금증을 Q&A 방식으로 알아봤다.



LG가 1995년부터 시작해 온 휴대폰 사업에서 26년 만에 완전히 철수한다. LG전자는 7월 31일부터 휴대폰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LG전자가 개발 중이던 세계 첫 롤러블폰도 볼 수 없게 됐다. 사진제공 | LG전자

세계 최초 롤러블폰 결국 개발 중단
종료 후에도 AS 부품 공급할 예정
6G 등 핵심 모바일 기술 개발은 지속



Q. LG폰은 언제까지 살수 있나?

A. LG전자는 통신기업 등 거래선과 약속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휴대전화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후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는 LG전자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

Q. 사후서비스는?

A. LG전자는 제품 구매 고객과 기존사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사후 서비스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종료 후에도 AS를 위한 부품 공급을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은 2년이며, 부품 보유 기간은 4년이다.

Q.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A. LG전자 사업 종료로 24개월 사용한 뒤 단말기를 반납하면 같은 제조사의 프리미엄 제품 가격을 할인해주는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높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LG전자는 통신업체와 관련 협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업체도 “LG전자와 협의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Q. 롤러블 개발은?

A. LG전자의 세계 첫 롤러블폰은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 종료로 개발이 중단됐다.

Q. MC사업본부 인력은 어떻게 되나?

A. MC사업본부 인력은 약 3500여 명이다. LG전자는 MC사업본부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하고,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LG전자의 다른 사업본부나 LG에너지솔루션 등 LG 계열회사의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Q. 모바일 기술개발은?

A. LG전자는 사업을 종료하더라도 모바일 기술 연구개발은 지속한다. 6G 이동통신, 카메라, 소프트웨어 등 핵심 모바일 기술이 TV나 가전, 전장부품, 로봇 등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2025년경 표준화 이후 2029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 원천기술 확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Q. 휴대전화 사업을 접는 이유는?

A. LG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

장에선 양강체제가 굳어지고, 경쟁사들이 보급형 휴대전화 시장을 집중 공략하며 가격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대응 미흡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LG전자 MC사업본부는 2015년 2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23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 누적적자만 5조 원에 달한다. 올해 1월부터 추진한 매각도 무산되면서, 결국 사업 종료를 택했다. 2018년 취임 후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미래 신사업에 집중하는 구광모 회장의 선택과 집중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Q. 그렇다면 앞으로 집중할 사업은?

A. 성과가 좋은 가전과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자동차 전장 사업 등이다. 특히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아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7월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파워트레인(동력전달장치) 분야 합작법인을 설립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강점을 가진 가전, TV 등 기존 사업은 고객 요구와 미래 트렌드에 기반한 플랫폼, 서비스, 솔루션 방식의 사업으로 확대한다.

Q.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A.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애플, 샤오미 등 국내외 사업자들이 LG전자의 빈자리를 적극 공략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65%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삼성전자의 행보가 주목된다. 애플은 운영체제(OS)가 다르고, 중국 스마트폰은 국내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최근 프리미엄 성능을 갖춘 보급형 스마트폰 제품군을 늘린 것도 LG전자의 빈자리를 공략하기 위한 행보다.

김영민 기자 dionys@donga.com

건강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위암 등 5대 암검진 ‘선택 아닌 필수’
첨단진단설비 갖춘 검진병원 선택해야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을 관리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고자 1980년부터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반건강검진 외에 한국인에게 발생 빈도가 높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의 5대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검진 초기 발견하면 신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어 5대 암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위암은 40세 이상은 2년에 한 번씩 검사해야 하며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녀 1년, 유방암은 40세 이상의 여성 2년,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에게 2년 간격으로 이뤄져야 한다. 간암은 40세 이상 또는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인 확인된 사람이라면 6개월 간격으로 검진하는 것이 좋다.

위암 검진은 위장조영검사와 위내시경검사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대장암은 출혈변이나 변비와 같은 배변습관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의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 이미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커 대장내시경을 통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간암은 바이러스성간염이 있거나 알코올 섭취가 많은 사람들에게 빈번히 발생하는데 치료시기를 놓치면 예후가 좋지 않다.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여성암인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의 경우, 유방암은 유방 촬영이 원칙이며 숙련된 의사에 의한 유방 촉진이 병행된다.

5대 암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은 전문의료진의 실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첨단 진단 장비가 있는 곳에서 받아야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병원을 선택해 검진을 받는 것을 권한다. 또한 5대 암검진을 할 때는 검사 전날 오후 9시 정도부터 금식해야 하며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면 충분한 상담이후 검진을 받아야 한다.

관악구 건강검진병원 더나은내과 이지경 원장

렉서스, 본격 전기차 시대 개막...‘LF-Z 일렉트리파이드’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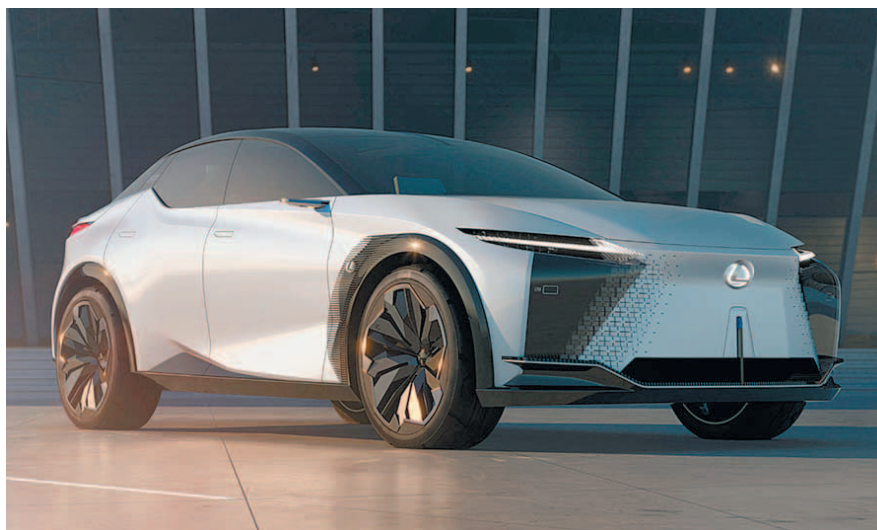
스핀들 바디...심플·미래지향적 디자인 눈길
새 4륜구동 기술 적용...1회 충전 600km 주행

토요타의 럭셔리 브랜드 렉서스가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 개막을 알리는 콘셉트카 ‘LF-Z 일렉트리파이드(Electrified)’를 공개했다. 토요타는 그동안 하이브리드와 수소전기차 위주의 친환경차 전략을 펼쳤지만, 글로벌 전기차 경쟁이 심화되면서 결국 전용 플랫폼을 장착한 순수 전기 콘셉트카를 공개하고 2025년부터 순수전기차를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LF-Z 일렉트리파이드는 BEV(배터리 전기 자동차) 렉서스 최초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새로운 4륜구동 기술인 다이렉트4 기술을 적용해 운동 능력을 향상시켰다.

다이렉트4는 높은 토크를 지닌 모터의 구동력을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륜과 후륜은 각각 독립 제어되며 전륜, 후륜, 상시사륜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구동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가속페달, 브레이크, 스티어링 휠 조작에 따라 구동력 배분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의도한 만큼의 가속감과 코너링을 즐길 수 있다.

외관은 스펀들 그릴로 상징되는 렉서스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이어받으면서도 더욱 심플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디자인했다. 정면 중앙부는 순수전기차의 특성을 반영해 매우 낮게 설계되었고 차량의 후방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



진다. 고출력 모터의 힘을 노면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대경계 타이어를 장착했으며 전체적으로 저중심의 와이드한 스탠스를 구현했다. 후면부 디자인은 고출력 모터가 발휘하는 역동적이고 민첩한 주행 감각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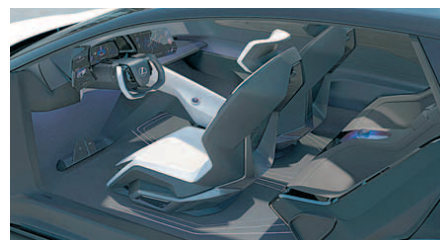
실내는 차량 내부 전면에서 후면까지 심리스하게 연결되는 구성을 통해 실내 전체를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만들었다. 천장에는 전면부터 후면까지 이어지는 롱글래스 파노라마 루프를 장착해 개방감을 강조했다.

차체 크기는 전장 4880mm, 전폭 1960mm, 전고 1600mm, 축거 2950mm다. 차체 중량은 2100kg다. 배터

리 용량은 90kWh이며, 리튬 이온 전지를 사용한다. 유럽 WLTP 기준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는 600km이며, 0~100km 가속에 걸리는 시간은 3.0초다. LF-Z 일렉트리파이드는 초기 버전의 콘셉트카로 실제 양산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한편 렉서스는 LF-Z 일렉트리파이드 공개와 함께 렉서스 전동화 전략을 공개했다. 사토 코지 렉서스 사장은 “2025년까지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하이브리드차 등 20종의 신차와 개선 모델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토요타의 럭셔리 브랜드 렉서스가 브랜드 최초의 전기 콘셉트카 ‘LF-Z 일렉트리파이드(Electrified)’를 공개했다. 렉서스 디자인 아이콘인 스펀들 그릴을 진화시킨 스펀들 바디를 적용한 외관 디자인(왼쪽)과 차량 내부 전면에서 후면까지 심리스하게 연결되는 구성을 통해 고급스럽게 완성한 실내 디자인. 사진제공 | 렉서스

호반호텔&리조트, 스플라스 리솜 워터파크 재개장

호반호텔&리조트가 운영하는 스플라스 리솜 워터파크가 3일 재개장했다. 수도권에서 차로 90여 분 거리로 전 시설에서 게트마늄 및 다량의 미네랄을 함유한 덕산은천수를 사용한다. 20개가 넘는 스파탕과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야외 어트랙션을 갖추어 가족 이용객에게 인기가 높다. 매주 금~일, 월요일에 워터파크 전 시설을 개장하며 화~목요일은 클린데이다. 스플라스 리솜은 워터파크 뿐 아니라 객실에서도 온천을 즐길 수 있다. 리솜리조트 홈페이지에서 인문 스파가 포함된 패키지 예약이 가능하다.

금호건설-경주시, 고도하수처리기술 개발 협약

금호건설(대표이사 서재환)은 경북 경주시와 고도하수처리기술(GK-SBR) 개발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될 고도하수처리기술의 명칭은 ‘GK-SBR’(SBR·연속회분식 활성슬러지법)로 SBR공법 명칭 앞에 경주와 금호의 영문 이니셜인 ‘G’와 ‘K’를 붙였다. 금호건설과 경주시는 앞으로 공동연구를 통해 GK-SBR공법의 오염물질 제거 원리를 이론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명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험 등을 진행해 그동안 경주시가 자체 개발해 온 고도하수처리기술을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